

# 제 542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1강연 요약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 **SPEAKER** 정지훈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현)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임강의교수  
현) 다음세대재단 이사  
전)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의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보건학 석사  
한양대학교 의학 학사  
저서 :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 거의 모든 IT의 역사 등

##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혁명과 기업의 비즈니스

### 1. 교통수단과 도시문명의 발전

#### 1. 도보에서 수로로

원시문명에서 인류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발' 이었음. 때문에 고대 문명은 주로 평야에서 발전됨. '발' 에서 '말' 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도시 문명은 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함. '말' 보다 더 빠른 '배' 로 주요 교통수단이 이동하자 문명은 수로를 낀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함. 때문에 중세 문명의 중심이었던 도시 들은 주로 운하를 끼고 있음

#### 2. 거대한 범선의 등장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며 대항해 시대라 불릴 정도로 무역 및 정복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도시문명은 운하 도시를 떠나 거대한 배가 정박 가능한 항구 도시로 옮겨 감.

#### 3. 기차에서 자동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량의 물건을 싣어 나를 수 있는 증기기관차가 탄생함. 이의 결과로 토지-노동집약 적 산업이 발달하였고 또한 기차가 전국의 노동자들을 '도시'로 밀집시킴. 이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현대적인 '도시'-아파트 형태의 주거가 탄생함. 기차에서 자동차로 주요 교통 수단이 변화하며 개별 이 동 범위가 넓어졌고 이에 도시가 확대됨. 현재 미국과 같은 단독주택이 이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떠오름

### 2. 교통수단, 미래의 모습

#### 1. 개인화된 에너지원

이때까지 인류는 집중화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음. 때문에 교통수단의 변천 역시 에너지원의 발 달에 따라 달라져왔고 개인의 선택이 배제된 채 거시적인 구조에 의존해왔음.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생산이 개인화 됨에 따라 교통 수단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공유 전기차 등으로 교통 수단이 다양해질 것임.

#### 2. 자동차 산업의 미래

IT와 자동차의 컨버전스로 인해 교통 수단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 또한 공유 자동차 등 으로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할 것임. 이에 자동차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차장 산업까지 다양 한 산업으로의 분화를 꾀해야 함.



# 제 542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2강연 요약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 SPEAKER 조 정 훈 소장 아주통일연구소

현)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현)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현) 개성공단지원재단 자문위원  
현)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자문관

전) 세계은행 동유럽 지역국 거버넌스 선임 전문관  
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팔레스타인 사무소 부대표  
전)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학사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신북방정책과 경제 진출 전략

### 1.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바탕으로 한 신북방정책

#### 1. 북방 진출을 위한 9 bridge

정부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지역을 동북아슈퍼그리드로 묶고 경제 진출의 교두보로 중점 육성할 예정. 이에 9개의 중점 영역(수산,농업,전력,철도,북극항로,가스,조선,항만,산업단지)를 선정. 단기적으로 수산,농업 영역에, 장기적으로 전력, 철도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자 함

#### 2.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

동북아 전반에 대한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막대한 지역임 신동방정책, 일대일로에 따라 개발 수요가 증가할 예정임. 몽,중,러 회랑과 연계한 다자간 협력 사업 가능

#### 3.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중부권역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및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을 통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경험 예상

#### 4. 서부 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주-항공 기술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기술 협력 강화로 신성장모델이 창출될 것. 다만 동유럽 특유의 경영 환경으로 단기간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 남북 경제 협력

#### 1. 북한 대전환의 시대

세계적인 투자 거물 짐 로저스는 "북한은 세계 억눌린 용수철"이라 표현할 정도로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버와 유사한 공유경제 모델이 평양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음

#### 2. 성공적인 북한 진출을 위한 3대 축

이제는 개성공단 같은 리스크 프리 사업모델은 통하기 어려움. 통일을 매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을 통한 건너뛰기 발전, 북한주민을 위한 포용적 발전이란 3대 축을 중심으로 북한에 진출해야 함





# 제 542회 KMA 최고경영자초청회 현장스케치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